

# KAWARABAN

**M I A 多言語かわら版**  
 瓦版 MIA 多语种信息报  
**MIA 다언어 카와라반**  
 MIA's Multilingual Publication  
**MIA Informativo Multilingue**

**Vol.53**

2015年2月

宮城県国際化協会  
**미야기현 국제화 협회**  
 Miyagi International Association  
 Associação Internacional de Miyagi

**日本語 ◆お葬式①◆**

前々号では遺産相続、前号ではエンディングノート、遺言、死亡届、火葬・埋葬について説明してきましたが、今号と次号のかわら版はお葬式について取り上げます。近年、宗教観の変化、亡くなったご本人の生前の意向やご家族の希望などによって、日本のお葬式のあり方も多様化してきていますが、ここでは日本で最も一般的な仏式のお葬式の流れについて紹介します。

**中国語 ◆葬礼①◆**

在瓦版上上期，我们就遗产继承问题，在上期我们就终结备忘录、遗嘱、死亡登记、火葬・埋葬问题做了介绍。自本期起连续两期我们将介绍日本的葬礼。近年来随着人们宗教观念的变化、逝者本人生前的愿望及家属的要求，日本的葬礼也趋于多样化。在此我们就日本最普遍的佛式葬礼（佛教仪式）做一介绍。

**韓国語 ◆장례식①◆**

지지난호에서는 유산 상속, 지난 호에서는 엔딩 노트, 유언, 사망신고, 화장·매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장례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종교관의 변화, 사망한 본인이 살아 있을 때의 생각이나 유가족들의 희망 등에 따라 일본의 장례식 방식도 다양해졌으나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불교식 장례식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英語 ◆Funerals①◆**

In the issue before last, we discussed inheritance matters, and in the previous issue, we covered “ending notes,” wills, death notifications, and cremation and burial. In this issue and the next, we will discuss funeral procedures and customs. In recent years, factors such as changes in religious beliefs, intentions the departed had expressed while still alive, as well as the family members’ wishes have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funeral rites within Japan. In this issue and the next, however, we will focus on Buddhist funeral ceremonies, as they are the most commonly conducted type of funeral in Japan.

**ポルトガル語 ◆Cerimônia Funerária①◆**

Nesta edição e na próxima do informativo Kawaraban vamos falar sobre “Cerimônia Funerária” prosseguindo assim com o assunto das duas edições anteriores, “Sucessão de Herança” e “Resolvendo os Últimos Assuntos Burocráticos em Vida”(que contém explicações sobre o Caderno Testamentário Informal, Testamento Oficial, Certidão de Óbito, Cremação e Sepultamento). Apresentaremos o processo formal tradicional da maioria dos funerais budistas realizados no Japão sendo que ultimamente devido a várias transformações sobre a visão religiosa e dependendo do último desejo do falecido e a pedido da família podem ocorrer muitas exceções e modificações na execução dessa cerimônia.

## 日本語

以前は宗派や地域ごとの風習に基づいて地域住民の協力を得てお葬式が行われていましたが、いまでは専門の葬儀社に依頼することがより一般的になっています。今号は基本的に遺族側からの視点で、次号は参列者側からの視点を中心に説明します。なお、宗派によってやり方が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詳しくは家族や近所の人に確認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 1. 臨終

現代では多くの方が病院のベッドの上で死を迎えます。医師によって死亡が宣告されてから、近親者は脱脂綿などに水を含ませ、故人の口を潤します（「末期の水（死に水）」と呼ばれています）。遺体を自宅や葬祭会館などに搬送する前に、病院で遺体を清め、服を着替えさせ、また死化粧をします。なお、欧米諸国などで一般的に行われているエンバーミング（遺体の防腐処理）は、日本ではまだ一般的ではありません。

### 2. 遺体の搬送

遺体の搬送は葬儀社に依頼するのが一般的です。以前はほとんどが自宅に搬送されましたが、現在は葬祭会館等に安置されることが多くなってきました。遺体の搬送をする際には、病院が発行した死亡診断書（市区町村に「死亡届」を申請する際にも必要です、詳細はかわら版 52 号参照）が必要となります。それと並行して、近親者や檀家（日本では家ごとに寺に所属し、寺に対して経済援助を行う代わりにお葬式や法要の一切をお願いするという習慣があります）となっている菩提寺（先祖代々のお墓がある寺）へ連絡をします。これは、安置場所で菩提寺の僧侶にお経（「枕経」と言います）をあげていただくためです。

### 3. 遺体の安置・納棺

宗派によって遺体を寝かせる向きが異なり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また、遺体の胸の位置には魔除けの刀（または短刀）を置き、顔には白布を被せます。前述の枕経が終わったら、遺体に白を基調とした服を着せ、棺に納めます。故人の愛用の物も入れる場合もありますが、火葬の際に燃えない金属類は入れないようにします。

### 4. 葬儀社との打合せ

内容としては、喪主（お葬式を執り行う人。一般的には故人の「配偶者」「親」「子ども」が務めます。）や各種係分担をだれにするか、また通夜・火葬・告別式などの日程、香典返しの品とその個数など多岐にわたります。

### 5. 通夜

本来は、告別式の前夜に遺族や親族が斎場（お葬式の会場）に集まり、故人をしのんで別れを惜しむ私的な葬別の場でした。近年では、通夜にも一般弔問客を迎えることがふつうになっています。僧侶の読経と遺族・会葬者による焼香（※詳細について次号で説明します）が行われ、その後会葬者に食事を提供します（通夜振舞い）。僧侶、会葬者が帰った後も、遺族・近親者は斎場に残り、交代で灯りや線香を絶やさないようにします。

### 6. 葬儀・告別式

故人と最後のお別れをするいわゆるお葬式です。通夜と同様に僧侶の読経と遺族・会葬者による焼香が行われるほか、故人と深いつながりのあった方のお別れの挨拶（弔辞）や喪主からの挨拶などがあります。

## 7. 出棺

火葬場に行く前に、棺の蓋を開け遺族や会葬者が遺体の周囲に花を置いて最後の別れをします。以前は、最後に「石打ち」と言って、棺に蓋をして石で釘を打って閉じましたが、最近はほとんどやられていないようです。

## 8. 火葬

手続きについては前号（52号）を参照ください。火葬は公営の火葬場で行われます。火葬が終わった後、遺族は遺骨を箸で拾って骨壺に納めます。火葬は葬儀・告別式より先に行われることもあります。

# 中文

过去多是基于宗教派别和地区的不同风俗，在邻近住民的协助下举办葬礼，现在更多是委托专业的殡仪公司办理。本期我们从遗族的角度，下期则将从出席葬礼的人的角度来介绍。另外，因宗教派系的不同，可能做法也有所异，建议具体细节向家人及街坊邻居确认为好。



### 1. 临终

当今，不少人是在医院的病床上逝去。医师告知死亡后，近亲者用脱脂棉等浸水后润湿故人口周（叫做末期水）。将遗体运送回家或到殡仪馆前，在医院里遗体被清洁后换衣，化妆。另外，欧美等国一般施行的遗体防腐处理，在日本还不普及。

### 2. 遗体的运送

遗体的运送一般都是委托殡仪公司。过去大都接回家里，现在选择安置在殡仪馆的增多。运送遗体时需要医院发行的死亡证明（在市区町村办理死亡登记手续时也需要此证明，详细请见瓦版 Vol. 52）。同时还要与近亲及自己家族的菩提寺（有自家祖先坟墓的寺庙）联系，请菩提寺的僧侣在遗体安置处为故人念经（又叫枕经）。

（檀家：按日本的习惯，每家都有一个所属的寺庙可请其为自己家族办理丧事及法事，也相当于对寺庙一种经济上的援助）。

### 3. 遗体的安置・入殓

需注意，根据宗教派系的不同，遗体摆放时头脚朝向有不同。另外，遗体的胸前要放一把辟邪的刀（或短刀），脸部盖白布。前面提到的枕经念完后，给遗体穿上白色调的衣服，入殓。也有将故人生前爱用品也一起放进去的，但注意不要放入非燃的金属类物品。

### 4. 和殡仪公司商议

主要内容包括丧主及各项分担的决定，通夜・火葬・遗体告别式等的日程，奠仪还礼的物品及数量等各事项。丧主一般由故人的「配偶」「父母」「孩子」担当。

### 5. 通夜

最初是一个在遗体告别式前夜，遗族及亲属们聚集在遗体安置场所，缅怀故人的家族性悼念活动。近年来，通夜时亲属以外的人也可前来吊唁已成为一般现象。僧侣念经后是遗族・吊唁者的烧香（※详细将会在下期介绍），之后，遗族一方请吊唁者吃饭。僧侣和一般吊唁者离开后，遗族・亲属们留下轮流守夜。以不让香火熄灭。

## 6. 葬礼・告别式

与故人最后告别的一个仪式。和通夜一样，也有僧侣的念经及遗族・吊唁者的烧香，另外还有与故人有深交的人致悼词及丧主的讲话。

## 7. 出殡

去火葬场前，打开棺盖，遗族和吊唁者在遗体四周放上鲜花，向遗体做最后告别。过去这个步骤叫做「打石」，即是盖棺后用石头将钉子钉入固定。现在大都不这么做了。

## 8. 火葬

关于手续，已在上期瓦版(Vo1.52)做了介绍。火葬在公营火葬场举行。火葬后，遗族用专用筷将遗骨夹起放入罐内。也有在葬礼・告别式之前就火葬的。

# 한국어

이전에는 종파나 지역의 풍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장례식이 치러졌으나 지금은 그것보다 전문 장의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족 측의 시점으로, 다음 호에서는 참석자 측의 시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종파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임종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면 가족들이 탈지면 등을 물에 적셔서 고인의 입술을 축여 줍니다('최후의 물(시니미즈)'라고 합니다). 시신을 자택이나 상제 회관 등에 옮기기 전에 병원에서 시신을 깨끗이 하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화장(化粧)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바밍(시체방부처리)은 일본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2. 시신 반송

시신 반송은 장의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자택으로 반송했으나 지금은 상제 회관 등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을 반송할 때에는 병원이 발행한 사망 진단서(시구정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카와라반 52 호 참조)가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친족이나 단가(일본에서는 집마다 어느 절에 소속하여 그 절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신에 장례식이나 법회 등을 맡기는 풍습이 있습니다)로 되어 있는 보리사(조상 대대의 위패를 모신 절)에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보리사 스님에게 독경(입관하기 전 죽은 사람의 머리 밑에서 하는 독경을 '마쿠라교'라고 합니다)을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 3. 시신의 안치・입관

종파에 따라 시신을 눕히는 방향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신의 가슴 위치에 마귀를 쫓는 칼(또는 단도)을 놓고 얼굴에 흰 천을 덮습니다. 앞서 말한 '마쿠라교'가 끝나면 시신에 흰색 옷을 입히고 입관합니다. 고인이 애용했던 물건을 함께 넣는 경우가 있으나 화장할 때 타지 않는 금속류는 피하도록 합니다.

#### 4. 장의사와 의논

상주(일반적으로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맡음)와 각종 담당을 누구에게 맡길지 경야(장례식 전날에 관 옆에서 밤을 새워 지키는 일), 화장, 장례식 등의 일정, 부의에 대한 답례 물품과 그 개수 등 여러 가지를 상의합니다.

#### 5. 경야

원래는 장례식 전날 밤에 유족이나 친족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고인을 그리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의식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경야에도 일반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독경과 유가족, 조문객의 분향(※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 설명하겠습니다)이 행해진 후 조문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츠야부루마이'라고 합니다). 스님과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에도 유가족은 교대로 장례식장에 남아 촛불과 선향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 6. 장례·영결식

고인과 최후의 이별을 하는 소위 '장례식(오소시키)'입니다. 경야와 마찬가지로 스님의 독경과 유가족, 조문객의 분향이 행해지고 그 밖에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분의 조사와 상주 인사말 등이 있습니다.



#### 7. 출관

화장터로 가기 전에 관 덮개를 열고 유가족과 조문객이 시신 주위에 꽃을 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전에는 마지막에 '이시우치(돌로 못을 박아 관 덮개를 닫는 일)'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하지 않는듯 합니다.

#### 8. 화장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호(52 호)를 참조하십시오. 화장은 공영 화장터에서 실시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가족이 젓가락으로 유골을 주워서 향아리에 넣습니다. 화장은 장례 및 영결식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nglish

In the past, funeral services used to be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members based on the region and/or the customs of the specific school of Buddhism, but nowadays it is more common to seek the services of a professional funeral director or mortician. This issue will focus primarily on the perspective of the bereaved family, while the next will address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ttending mourners. Since certain procedure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particular school of Buddhism, we recommend checking with your family and/or neighbors regarding the details.

#### 1. Passing Away / Death

Nowadays, many people pass away in a hospital setting. After death is declared by a doctor, close relatives soak a piece of cotton or gauze in water and wet the mouth of the deceased in a custom referred to as matsugo-no-mizu (or shi-ni-mizu). Before the body is sent back home or to the funeral home, it is cleansed, changed, and made up at the hospital. The kind of embalming (preservative treatment) that is the standard in Western countries is still not commonly done in Japan.

## 2. Transporting the Body of the Deceased

It is common to have a funeral director take care of the transportation of the body. Before, it was customary to transport the body back to the family's house, however, nowadays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t the body rest at the funeral home. A certificate of death issued by a hospital is required when transporting the body and also when reporting the death (shibo-todoke, death notification) to the local municipality (see issue 52 of Kawaraban). At the same time, close relatives of the deceased as well as the family temple (bodaiji, the temple containing the tombs of the family ancestors) are informed of the death (in Japan, there is a custom of a family giving financial support to a temple in exchange for requesting funeral and memorial services). This is done to arrange for the Buddhist priest from the family temple to chant a sutra (called makuragyo) at the resting place of the deceased.

## 3. Laying of the Body to Rest and Encoffin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body is laid out differs depending on the school of Buddhism, so caution is necessary in this respect. Additionally, a sword (katana) or a dagger is placed on the chest to ward off evil spirits and a white cloth is used to cover the face of the deceased. After the chanting of the sutra (makuragyo) is finished, the body is clothed in white and enclosed in the coffin. Personal belongings and effects that were favorites of the deceased person are sometimes put in along with the body, bu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body will be cremated along with these belongings, unburnable materials such as metals should not be put in.

## 4. Meeting with the Funeral Director

Among the issues discussed are the designation of the chief mourner (the person who performs the funeral; normally the spouse, parent, or child of the deceased) as well as who will perform the other various duties, along with various arrangements such as scheduling of the wake, cremation, funeral service, etc. and the type and number of gifts to prepare in return for funeral offerings (koden-gaeshi).

## 5. Wake

Originally, the bereaved family and close relatives gathered in the funeral hall (where the funeral service takes place) the night before the funeral service, which provided a private setting for the bereaved to mourn the deceased. In the recent years, however, it has become common for other mourners to attend the wake as well. After the priest chants a sutra and the bereaved and other mourners burn incense in offering to the deceased (to be explained in the next issue), food is provided for the mourners (tsuya-burumai). After the priest and the mourners leave, the family and relatives remain in the funeral hall and take turns in constantly providing light and burning incense.

## 6. Funeral Service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final farewell to the deceased. The priest chants a sutra while the bereaved and the mourners burn incense as is done during the wake, and those who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 departed may give eulogies (choji) along with a speech from the chief mourner.



## 7. Funeral Procession

Before going to the crematorium, the lid of the coffin is opened and the bereaved and the mourners place flowers around the body of the deceased in a final farewell gesture. Before, there was a custom called "ishiuchi," in which nails were driven into the lid of the coffin with stones in order to shut it, but recently this custom goes mostly unpracticed.



## 8. Cremation

For details about the procedure, please refer to the previous issue (Vol.52). Cremation is performed at a public crematorium, after which the bereaved collect the remains with ceremonial chopsticks and place them into an urn (kotsutsubo). In some cases, cremation is performed before the official funeral service.

### Português

Tradicionalmente os rituais funerários eram realizados com a ajuda dos moradores e vizinhos da região residente de acordo com o costume e tradição religiosa de cada localidade mas atualmente os familiares estão preferindo contratar empresas especializadas para realizar a cerimônia funerária. Nesta edição abordaremos o assunto apresentando os preparativos e rituais da cerimônia funerária que devem ser realizados pela família do falecido e na próxima edição abordaremos o assunto pelo lado de participante de uma cerimônia funerária. Observando que dependendo da vertente ideológica do templo podem haver algumas diferenças de procedimentos na cerimônia por isso caso seja necessário é interessante procurar saber mais detalhes com amigos e pessoas próximas.

#### 1. Leito de Morte

Atualmente existe a possibilidade da pessoa doente e em estado terminal aguardar a morte em um leito de hospital. Dependendo do médico ao constatar o falecimento realiza-se a cerimônia da “Última Gota D’Água”(Matsugo no Mizu) somente entre os familiares e parentes próximos que irão molhar os lábios do falecido com uma gaze embebida com água. Antes que o corpo do falecido seja transportado a sua casa ou ao local de realização da cerimônia funerária ele é desinfetado, trocado e maquiado. No Japão não são realizados embalsamentos(processo de conservação) como nos EUA.

#### 2. Transporte do corpo

Normalmente solicita-se a empresa funerária o transporte do corpo. Tradicionalmente o corpo era levado do hospital a residência do falecido para a realização da cerimônia funerária, porém atualmente é comum realizar toda a cerimônia no salão da empresa funerária. Para o transporte do corpo é necessário um documento de notificação do óbito (no volume 52 podemos conhecer os detalhes dos trâmites necessários para solicitação da “Certidão de Óbito”. Os parentes, pessoas íntimas e o monge budista pertencente ao templo o qual a família possui a campa no cemitério(as campas no cemitério são ligadas ao templo e é uma tradição ancestral) são avisados(é uma tradição japonesa cada clã familiar estar ancestralmente ligado a um templo que recebe uma doação de cada clã familiar com a finalidade de se responsabilizar pela cerimônia budista funerária) Na cerimônia budista realizada acredita-se que através da oração do monge ocorre o encaminhamento da alma do falecido a um local seguro(Seria uma tradição com a finalidade do monge budista encaminhar o falecido “Makuragyo”).

#### 3. Posição da colocação do Ataúde • Ataúde (Caixão)

A posição da colocação do ataúde no salão depende da vertente budista. Na região do peito coloca-se uma espada(punhal) como amuleto e cobre-se o rosto com um pano branco. Terminado a cerimônia de “Marugayo”, veste-se o corpo com uma roupa branca e coloca-se alguns pertences pessoais. Juntamente com o corpo são colocados os pertences mais apreciados evitando objetos metálicos que possam interferir na cremação.

#### 4. Reuniões com a empresa funerária

Geralmente o andamento da cerimônia funerária é decidido através de conversações com o solicitador da cerimônia(geralmente o solicitador e líder do andamento da cerimônia seria o cônjuge ou e os pais / filhos) com a empresas funerária, elegendo os membros da família que possam auxiliar nos detalhes da cerimônia cabendo ao mesmo a responsabilidade na decisão da programação do velório, cremação e a quantidade de “Kouden Okaeshi”(tradição de devolução simbólica ao dinheiro recebido dentro do envelope pelos participantes da cerimônia funerária chamado “Kouden”; no caso essa “devolução” simbólica do dinheiro recebido é uma forma da família do falecido agradecer a presença e geralmente é uma sacola contendo alguns produtos alimentícios não perecíveis.



#### 5. Vigília

A cerimônia funerária consta de uma vigília da família e parentes, antes da despedida definitiva do falecido que é realizada na sede da empresa funerária escolhida pelos familiares. Nos últimos tempos é comum receber também conhecidos e pessoas do relacionamento do falecido. Na vigília o monge budista realiza uma preleção, queima de incenso e agradecimentos dos familiares aos participantes da cerimônia (mais detalhes na próxima edição), e no final é oferecido aos participantes uma leve refeição (agradecimento por participar da vigília). Depois de terminada essa parte da cerimônia o corpo é velado durante todo o tempo por familiares e parentes próximos que procuram se revezar na troca de velas e incenso.

#### 6. Funeral • Despedida

É a cerimônia de despedida do falecido propriamente dita. Como na cerimônia de vigília o monge budista celebra a cerimônia de despedida com a participação dos familiares, parentes, amigos e discurso de despedida realizado por alguém próxima ao falecido e algumas palavras de agradecimento por parte do familiar responsável pela organização da cerimônia.

#### 7. Abertura do Caixão Funerário

Antes do corpo ser levado ao crematório o caixão é aberto para a última despedida dos familiares que colocam flores em volta do corpo. Antigamente havia um ritual de bater pregos no caixão com uma pedra que atualmente não é mais realizado.

#### 8. Cremação

Para resolver os trâmites burocráticos para cremação vide a edição anterior volume 52. O crematório público é responsável pela cremação do corpo. Depois da cremação os familiares recolhem os ossos e colocam num recipiente especial. Em alguns casos a cremação pode ocorrer antes da cerimônia funerária e cerimônia de despedida.

「かわら版」とは、日本の江戸時代に作られていた、さまざまなニュースを一枚刷りにした印刷物のことです。  
 “瓦版”是日本江戸时代发行的一种出版品的名称。  
 「카와라판」이란, 일본 에도(江戸)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뉴스를 한장의 종이에 나타낸 인쇄물을 말합니다.  
 “Kawaraban” was created during Japan’s Edo Period as a one sheet, printed material featuring different news.  
 “Kawaraban” foi criado durante o Período Japonês Edo como um folheto, onde eram impressos diversos artigos em formato semelhante aos atuais jornais.

MIA 多言語かわら版 Vol.53  
 編集・発行：公益財団法人宮城県国際化協会  
 (Miyagi International Association)  
 〒981-0914 仙台市青葉区堤通雨宮町 4-17  
 宮城県仙台合同庁舎 7 階  
 電話：022(275)3796 Fax：022(272)5063  
 E-mail：mail@mia-miyagi.jp  
 Website：http://mia-miyagi.jp/